

시론



이주용 목사  
김포예성교회

오늘의 전도 현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전도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며 교회는 더욱 침체되고, 전도역시 더 약화되었습니다. 성결교회는 1907년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으로부터 ‘자생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의 핵심을 응축한 사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습니다. 전도의 위기 시대에 성결교회의 위대한 자산이자 전도 표체인 사중복음에 다시 더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서 성결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전도전략입니다. 성결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결’입니다. 고단 현장에 의하면 성결을 이렇게 정의 하고 있습니다. ‘거룩, 정결, 성령세례, 불세례, 완전한 사람’ 등의 말로 표현합니다. 전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성결전도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정권을 교체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일에 총력을 다합니다(고후 4:4). 하나님의 뜻이며(살전 4:3), 믿음과 기도로 거룩해지고(딤후 4:5), 하나님의 명령(렘전 1:15)인 성결은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이고, 강력한 전도 무기입니다. 성결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결전도는 내 힘으로 전도한다는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신앙이 자라며,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부가운 짐이 아니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기쁨과 특권이며, 최고 복된 일입니다. 필자는 (사예심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전국의 약 30여 개 지부를 순회하며 전도일일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전도훈련을 받던 사관생도들의 간증 중에 어록을 봤습니다. “소풍 같은 전도! 전도는 보물찾기!” “전도하면 복 터지고, 전도 안 하면 속 터진다.” “전도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안 뿌리면 국물도 없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도자에게 확신과 새 힘이 솟아납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결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성도들끼리만 거룩해지는 ‘폐쇄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온몸과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 희생, 친절, 선김, 이웃을 향한 구별된 사랑의 실천이 곧 성결전도의 시작입니다. 현대인들은 말만 앞세우는 복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말재주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전 2:4-5). 그러기 위해 성결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전도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성결로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적극적인 성결로서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말로도 전할 뿐 아니라, 성결한 삶으로 전도의 문이 닫힌 이 시대에 새롭게 생명의 길을 여는 성결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칼럼



박희석 목사  
진주나눔목교회

쏸 화살처럼 바빠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고된도전서 15장(1~11절)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다. ‘예수님 부활의 장’이라 불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치 가시가 박히듯, 두 눈 가득히 박혀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다. ‘성경대로’라는 짧은 네 글자이다. 본서의 저자 바울은 고린도교회 지체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렇게 선포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3, 4절)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

성경대로

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즉 하나님의 오랜 약속과 신실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언약의 정점이었다. 이 묵직한 ‘성경대로’의 네 글자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나는 과연...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내 자신의 일상은 ‘성경대로’ 보다는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시간표대로’ 다져 인되어 흘러갈 때도 있음을 고백한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마치 지나온 경험을 절대적인 것처럼 타인에게 주장하며, 내 욕심과 계산을 따라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능력인 양 어깨를 들썩이고, 삶의 궤도가 조금만 꺾였어도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근심 걱정애 빠지곤 한다. 기존의 중심이 말씀이 아닌 ‘내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벽처럼 고정되어 있는 탓이다. 그러나 내가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의 삶이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하고 고 톨스러운 현실 앞에서, “내 원대로 마시울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늘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시간과 생명까지 맞추셨다. 그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마침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태동한다.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변적인 인간의

감정은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궁토록 변치 않는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거창하고 거대한 신학적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태도의 전환을 뜻한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를 때, 내 감정 대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성경대로 말씀 앞에 서 보는 것.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불안이 엄습할 때 내 염려 대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따라 ‘성경대로’ 살아 보는 것이다. 아주 작고, 작은 순종들이 겹겹이 선으로 이어지고, 점차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성경대로’ 빛이 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인류의 역사를 한 번 바꾸었듯, 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진정한 영적 변화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운전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맡겨보면 어떨까?, 기다리는 희망이 아니라 즉시 순종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한 편의 완결하는 한 꼭지의 끝판이 될 때, 그 인생의 제 목이 부끄러운 없이 ‘성경대로’ 사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대로’의 목양이 되리라 확신한다.

社說

국민주권과 참정권(參政權)

대한민국이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되고,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국가의 법을 제정하여 비로소 대한민국이 제헌국회를 통한 민주국가로 국민주권을 선포하므로 대한민국은 독립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독립 국가란, 국토, 국민, 주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제헌절). 그리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국민주권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신임을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특정 계층이나 세력에 의하여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운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에서 참정권이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실제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리를 말한다. 국민은 참정권을 통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참정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선거권이다.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권리이다. 둘째, 피선거권이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국민이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이다. 셋째, 국민투표권이다. 헌법의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이다. 넷째, 정치 참여의 자유이다. 정당 활동, 정치적 의견 표현,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넓은 의미의 참정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소중한

한 권리이다. 이렇게 국민주권은 “국가

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의 원리이고, 참정권은 그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우리는 지난 6.3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국민주권인 참정권이 훼손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이다. 6.3 선거에서 총투표권자수는 44,649,908명이고, 실제 투표자는 27,236,444명이나, 투표율은 작년 50.9%보다 10.1% 높은 61.0%이었다. 국민주권이라고 하지만 1/3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번 선거의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주요 문제점은 첫째,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다. 둘째, 현장 대응이 미흡하였다.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하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셋째, 개표 결과 입력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넷째, 보고 체계와 관리의 부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선관위의 운영을 ‘총체적 부실 관리의 실패’라고 비판하는 것이요, 국민은 참정권의 훼손이라고 저항하는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확인,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더욱 안정하게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길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이충만 사장 김충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주 인쇄인 배성환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종회회관)  
대 표 전 화 070-7132-0091~5 홈 페 이 지 www.sknews.net  
광 고 신 청 안 내 070-7132-0091 독 자 기 고 · 제 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이제 정장면 박사의  
심층적이고 세밀한 이단 강의를 통해  
그 실체가 파헤쳐진다.

(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이단과타종교, 강의」)

# 이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특징**

-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와 3년 3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의 실제 이야기
- 이단의 계보를 통한 시대적 특징과 발생원인 분석
- 이단의 빠지는 이유와 문제점 파악
- 성경해석의 바른 이해
- 주요 이단들의 주장과 특징
- 이단 예방과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신청 & 문의 010.8200.2693**

# 모든 공 예배시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제2회 여성 목회자 배드민턴 대회 결산서 |                         |             |                                   |             |
|------------------------|-------------------------|-------------|-----------------------------------|-------------|
| 구분                     | 수입                      |             | 지출                                |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교회 후원                  | 성령수생교회(홍익종교) 이단반 목사     | 1,000,000   | 관공비                               | 736,000     |
|                        | 두란노교회(부흥교회) 이단반 목사      | 500,000     | 행사차량비                             | 438,000     |
|                        | 늘사랑교회(서기) 강령목 목사        | 200,000     | 장기차 기프트비                          | 1,245,000   |
|                        | 하늘빛교회(홍익종교) 김원희 목사      | 500,000     | 식대비                               | 110,000     |
|                        | 광천교회(홍익종교) 김승용 목사       | 100,000     | 간식비                               | 270,000     |
|                        | 사단교회(신명교회) 장기서 목사       | 100,000     | 승차차 시세비                           | 500,000     |
|                        | 침례교(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식대비                               | 1,021,000   |
|                        | 사랑의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경매비                               | 400,000     |
|                        | 주님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교재비(기프트)                          | 350,000     |
|                        | 광명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기프트비                              | 50,000      |
|                        | 행복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             |
|                        | 주님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             |
|                        | 마로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200,000     |                                   |             |
|                        | 부흥성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200,000     |                                   |             |
|                        | 부흥성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200,000     |                                   |             |
|                        | 광무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200,000     |                                   |             |
|                        | 광명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200,000     |                                   |             |
|                        | 주님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비전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생수의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새문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안성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안성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강서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제비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자전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 침례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100,000     |                                   |             |
| 기관 후원                  | 총회본부(신명교회) 이단반 목사       | 500,000     |                                   |             |
|                        | 은혜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             |
| 물품 후원                  | 광명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             |
|                        | 하늘빛교회(신명교회) 김원희 목사      | 300,000     |                                   |             |
| 수입 합계                  | 군산시 배드민턴 협회 (합계) 김원희 목사 | 750,000 원   | 기프트비 2,000원, 패자부활전 2,000원, 2,000원 | 6,348,000 원 |
| 잔액                     |                         | 1,161,000 원 |                                   |             |

## 국내외 성결가족을 하나로 잇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교단의 정통성 성결신문을 애독해주시고 협력해주신 성결가족들께 알려드립니다. 그간 광고지원에 보여주신 성결가족들의 관심과 협조가 본신문 운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로도 아래의 광고단가를 참고하시어 교회행나귀 성도들의 사업장을 전국교회에 알리는데 저희 성결신문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광고단가

| 지면    | 규격                    | 금액        |
|-------|-----------------------|-----------|
| 1면    | 전5단 / 칼라(37cm×17cm)   | 1,000,000 |
| 2~11면 | 전5단 / 칼라(37cm×17cm)   | 800,000   |
|       | 전5단/2 칼라(18.2cm×17cm) | 400,000   |
|       | 전5단/4 칼라(8.9cm×17cm)  | 200,000   |
| 12면   | 전면 / 칼라(37cm×49cm)    | 3,000,000 |

※ 1년 장기계약을 할 경우 20% 할인된 금액으로 광고게재 할 수 있습니다.

## 성결신문사

문의: TEL. 070-7132-0091  
E-mail : sknews12@daum.net